

4/5(화) 왕상 3-6장 네게 무엇을 줄꼬?

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<작은 아이>라고 부릅니다(3:7). 그러나 솔로몬은 이미 <대장부>였고 <영리한 어른>이었습니다(2:2, 3:9, 2:9). 즉위 과정에서 어머니와 선지자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,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의 유언을 당차게 실행해 나갑니다(2:13-44).

솔로몬은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했습니다(2:34, 46). 형 아도니야를 처형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했습니다(2:24, 27). 일련의 과정에는 왕권 강화를 위한 솔로몬의 의지가 담겼습니다. <선대 2:7>하는 일보다 <처리>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. 내부 기강을 확립한 솔로몬은 <애굽> 왕실과 혼인을 맺음으로 왕국 안팎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마련했습니다(3:1).

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<작은 아이>로 섰습니다.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왕실의 큰 사건들과 반란을 보아왔습니다. 사리사욕과 당락, 자기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군상들을 보아왔습니다. 왕실에는 아직도 왕이 될만한 자들,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. <다 된 듯 보여도> 솔로몬 역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.

“네게 무엇을 줄꼬? (3:5)” 솔로몬은 <하나님>으로만 든든한 왕권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(3:6). 그는 <세상 왕도>가 아니라 <하나님의 왕도>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. 하나님께서 왕인 자신을 다스려 주십사 <듣는 마음>을 구합니다(3:9, 듣는 마음).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하도록 참 지혜를 구합니다(3:11, 16-28). 이는 다윗의 유언이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(2:3-4, 3:14, 6:12-13, 8:25-26).

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 이상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. 태평성대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(3:12-13, 4-6장, 삼하7:11-16).

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까?
“네게 무엇을 줄꼬? ”라고 물으실 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?

솔로몬 성전

